

주요 테마

- 제 3차 동방경제포럼 문화 행사 프로그램 승인
- 외국 관광객들, 처음으로 극동 전자비자 발급받음
- 중국, 극동에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8월11일, 리아통신 «PrimaMedia»

제 3차 동방경제포럼 문화행사 프로그램 승인됨.

9월 5일 '극동의 거리' 페스티벌이 포럼 문화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 페스티벌에서는 극동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경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럼 진행 기간 내내 유리 바쉬메트 지휘아래 '모스크바 솔리스트' 실내 앙상블 공연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발레를 포함한 마린스키 극장의 연해주 지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민과 방문객을 위해서는 중앙광장에서 '투레츠키 합창단' 공연과 Indian Ocean 퓨전 그룹 공연, 그리고 태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http://primamedia.ru/news/611870>

2017년8월10일, 타스통신

아세안 회원국들, 2017-동방경제포럼 참석 계획.

프라무드비나이 태국 외무장관과의 회담결과 관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17-동방경제포럼에 아세안 회원국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일환으로 국가간 비즈니스 대화 세션에는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간의 대화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세션에서는 극동에서의 유망한 협력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논의가 있을 계획이다.

<http://tass.ru/politika/4473608>

2017년8월9일, 타스 통신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논의 예정.

극동 선도개발구역 관련 연방법 정비 문제가 제 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극동 투자규모가 큰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 연장에 대한 법령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을 위한 단일 세제 도입에 대한 법령안, 외부 인프라 건설 투자 비용 상환에 대한 법령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신규 법안 논의에는 국가 두마와 상원 의원들도 참석할 계획이다.

<http://tass.ru/obschestvo/4470981>

2017년 8월8일,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에서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계획.

2017-뻬제르부르그 국제경제포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러시아 디지털 경제 논의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아태지역 금융분야 첨단기술-블록체인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나' 또는 '스마트 에너지 - 수요와 가능성의 조화,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같이 첨단 기술과 관련된 몇 개의 세션이 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https://ria.ru/economy/20170808/1499994707.html>

극동 국가정책

2017년8월 8일, 베스찌

외국 관광객들, 극동방문을 위한 전자비자를 처음으로 발급받음.

입국비자 간소화 시행 며칠 만에 42명의 중국인, 38명의 일본인과 알제리, 인도,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튀니지 사람들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았다. 외국 방문객들은 단수 상용비자, 관광비자, 교류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전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부두 세관와 크네비치 공항 세관, 두곳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올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캄차트스끼 크라이와 사할린 주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세관이 운영될 계획이다.

<http://www.vesti.ru/doc.html?id=2918923>

2017년 8월 8일, Regnum

블라고베센스크, 자유항 적용지로 선정 가능.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적용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차예프 극동개발부 차관의 발언에 따르면, 블라고베센스크의 자유항 적용지 선정 이슈는 국경지역의 특별 경제권 조성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아무르주 뿐만 아니라, 극동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ttps://regnum.ru/news/2308029.html>

극동경제

2017년 8월10일 «gazeta.ru»

중국, 극동에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중러 합작회사 '타이 유안'은 농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60억 루블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농산업 클러스터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면적은 7천 헥타르로 본사, 감자, 종자류, 콩류 농장, 농산물 가공 공장, 물류지대, 관광구역 등 5개의 권역으로 구분 조성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누어져 2024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https://www.gazeta.ru/business/news/2017/08/10/n_10415288.shtml

2017년 8월10일, 리아 노보스찌

캄차트카 최초의 국제 허브항 가동 예정.

자유항 역내 '세로글라스까' 터미널 프로젝트가 가동에 돌입하면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카항에서 곧바로 아태지역 국가들로 생선 직운송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허브항 가동 및 선박운송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면, 생선의 고품질 유지가 가능해지고, 부두 선적 작업비 절감을 통해서 물류비 감소가 가능해진다.

현재 투자자들은 1만5천톤 규모의 냉동시설을 건설 중이며, 항만 크레인 설치 및 대형선박 정박에 필요한 기계 보급을 끝내가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약 8억7천6백만 루블이다.

<https://ria.ru/economy/20170810/1500118260.html>

극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 성공 체험

2017년 8월10일 «극동 캐피탈»

아무르주, 러시아 최초의 콩 완제품 공장 가동.

'아무르스끼' 식용유 생산 공장이 콩 완제품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선도개발구역인 벨로고르스크에서 진행 중이며, 총 투자액은 15억루블 이상에 달하고 있다. 현재 공장 직원은 350여명이다. 이미 생산품이 우랄, 서시베리아 지역, 중국 쪽으로 판매가 되었다. 해당 공장은 자유관세지 절차를 밟은 최초의 선도개발구역 입주 회사로서 프로젝트 투입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http://dvkapital.ru/regionnow/amurskaja-oblast_11.08.2017_10397_v-amurskoj-oblasti-zarabotaet-pervyj- v-rossii-zavod-po-glubokoj-pererabotke-soi.html

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조직위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 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적기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